



3면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대응 체계' 전환

전주매일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음 7월 27일) 제35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준비 '착착'

도, 요구 기준보다 많은 평균 810개 객실 확보 전시기업 300개 부스 이상 초과 모집 가능성 기업전시관 구축도 공정 일정에 맞춰 준공 예상

오는 10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2024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 개최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자치도 사무국은 대회에 참가하는 재외 한인 경제인들이 체류하게 될 숙박시설을 비롯해 주차장 확보, 기업부스 모집, 기업전시관 설치 등이 재외동포청과의 협업을 통해 각 분야별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 사무국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대회 개최 요구기준은 호텔 객실수는 750개이며, 재외동포청과 현재 계약을 완료해 확보한 7개 호텔의 객실 수는 3일간 소요 평균 810개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전시 부스 확보도 재외동포청이 대회 공식 온라인 채널인 한상넷(hansang.net)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300개소를 모집하게 되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초과 모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재외동포청과는 별도로 전시 참가기업과 수출상담 참

가기업을 지난 4월부터 선제적으로 각각 발굴해 나신 바 있다.

전시 참가기업들은 참가신청을 마친 뒤 홍보를 펼치고 있는 중이며, 바이어와 사전 일대일 매칭을 원하는 도내 수출상담 참가기업 500개사의 기업상품 설명서를 지난 6월 작성, 재외동포청을 통해 관리 바이어를 비롯해 세계 한인무역협회(OKTA)회원, 리딩CEO, 운영위원 등에게 7월 초에 이미 배포한 상태다.

기업전시관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 내에 8,200㎡, 300부스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며, 공정 일정에 맞춰 전시장 구조물 설치 등 오는 9월말 예상대로 준공이 된다. 그 후 10월에는 전기, 소방 등 공사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내부 부스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대회에 직접 참가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도 전북대 내 주차장 10개소 839면과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과 전주동물원, 연화마을 등 3개소 916면 등 모두 1,755면이 확보된 상황이다. 도 사무국은 대회 참가 해외경제인들의 경우 호텔과 행사장 등을 연결하

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불편 최소화해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회 참가 국내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참가객들의 주차편의는 외부 보조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이용객 불편과 대학 내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재학생들과 간담을 갖고,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는 최초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해서 매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방정부가 국제행사 개최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행사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재외동포청과 협업을 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서 매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방정부가 국제행사 개최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이 참가하는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행사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청년 기업가의 해외 진출 등 세계 한인 동포경제인을 하나로 묶는 대표적인 행사로 치러진다. /이만호 기자

지능형 농생명 로봇산업 집중 육성

도, 산업부 로봇 플래그쉽 공모 등 선정 정책 포럼 열고 산업 육성 아이디어 공유

전북자치도가 지역 내 첨단로봇을 활용한 제조업 및 농생명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플래그쉽 공모사업과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에 모두 선정돼, 지능형 농생명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 두 가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13억2,400만원을 포함한 총 26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자동차 전후방 산업에 첨단 로봇 기술을 접목하여 제조업의 혁신과 공정 혁신을 실현할 예정이다.

첨단 제조로봇 실증사업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전후방 산업 제조로봇 실증'을 통한 공정 혁신을 목표로, 제조현장에 로봇을 도입하여 제조혁신과 공정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 중공업의 기반 제조업 로봇공정 모델의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봇 플래그쉽 사업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전후방 분야 첨



2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열린 지능형 농생명 로봇산업 정책 포럼.

단 제조로봇 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정책·전략 수립, 시제품 제작, 기술 지원, 재직자 교육 및 훈련, 세미나 개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와 캠틡종합기술원은 2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도내 농생명 분야 로봇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능형 농생명 로봇산업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력 산업과 첨단 로봇 기술의 융합을 통해 특화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캠틡종합기술원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

북테크노파크 등 도내 다양한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농생명 분야 기업의 제조 로봇 육성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일우 산업혁신실장의 지능형 로봇 관련 정부 정책동향을 발표했으며, 농촌진흥청 이시영 스마트팜 개발과장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주)대동의 이광용 플랫폼사업본부장과 LS엠트론의 유지훈 트랙터연구소장의 첨단 농작업 로봇 현장 적용에 대한 사례도 공유됐다. 포럼에서는 전북대학교 유범상 기계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도내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농생명 로봇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열린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분야와 첨단 로봇기술의 융합을 통해 특화 로봇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기업체 종사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역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만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제28회 **무주방안분축제**

2024. 8/31(토) - 9/8(일)

주최: 무주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방안분축제 재건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



SDGs로 지방시대 실현

29일 정읍에 위치한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SDGs 영남·호남·제주 지속가능발전 포럼'이 열린 가운데 영·호남, 제주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농수산발전기금 융자한도 3000억원으로 확대

도,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협약 체결... 기존 2000억원에서 상향

전북특별자치도와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29일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융자대출 한도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금리 시대에 농업인들의 대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농업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 지원의 범위를 확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그동안 1~2%의 낮은 금리로 농업인들에게 생산설비 운영 자금 등을 융자해왔으며, NH농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최대 2,0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융자액 1,900억원이 소진되면서, 추가적인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한도 상향이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의 최대 대출 운용액은 3,000억원으로 상향돼, 농업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전북특별자치도와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29일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융자대출 한도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고금리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는 기금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융자한도를 늘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내달 1일까지 전북자치도 축산물 소비축진 행사... 최대 50% 할인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도청 서편광장에서 '2024년 축산물 소비축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를 촉진해 한우와 한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전북 지역의 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민들이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우와 한돈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가공품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계란은 30구 한 판에 4,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축산물 소비축진 행사가 한우와 한돈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도민들에게도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